

자우에서의 늑골결손기형 예

이차수, ¹김성호, 박청규, 정규식, 정원일, 정재용,
임태선, 정혜진, ¹김세라, ²박진형, ³권무수

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, ¹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
²건국동물병원(경주), ³대구가속병원(울진)

2001년 7월 6일 항문폐쇄와 기립불능을 보이는 10일령의 홀스타인 자우가 병리학적 진단을 받고자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되었다. 이 자우는 경상북도 고령군의 어느 젓소 목장에서 2산째 자우였다. 임상적 검사에서는 자우의 출생시 항문폐쇄에 따른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포유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립이 불가능하였다.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였던 바, 왼쪽 1~3번 늑골의 결손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손된 늑골쪽의 견갑골은 변형되어 있었고 왼쪽 상완골도 그 길이가 짧아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. 내부장기의 육안적 소견에서는 하등의 이상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척추에서는 S자상의 측만(척추측만증)을 관찰할 수 있었다. 현미경적 검사에서는 대뇌의 회백질에서만 소수의 신경교증을 관찰할 수 있었다. 본 예는 지금까지 문헌상 보고된 바 없는 희귀한 예로 간주되며, 일부 늑골결손기형과 함께 척추측만증과 항문폐쇄를 동시에 보이는 기형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.